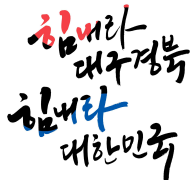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 2020.4.2.(목)	
책 임 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담 당 자	김 태 훈 사무관 (02-2100-2861)	

제 목 :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.
[서울경제 4.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- ① “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이 도입됐지만, 소상공인 사이에서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.. ”
- ② “대출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, 기업은행, 소진공 등으로 대출창구를 다원화했지만, 기관마다 기준이 다른 탓에 혼선만 커졌다는 토로이다...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① 정부는,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보증심사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해 「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(3.27)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.
 - 연 1.5%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,
 - 고신용자는 시중은행, 중신용자는 기은, 저신용자는 소진기금이 각각 중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.
- ② 이번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수요가 다수 기관으로 분산될 경우, 보증심사 지연에 따른 불편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③ 다만,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“패키지 프로그램”의 특성상, 취급 기관별 세부적인 지원요건이 다소간 차이가 있는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.
- ④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은 개별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등에 대해 현장 안팎에서 충실히 안내하여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자라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